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 연방 공군이 계속되면서 가족과 고향을 잃은 코소보 난민들의 비탄에 잠긴 모습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나토의 공격으로 세르비아인들은 알바니아인에 대한 잔혹한 인종청소를 시작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하루에 수만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를 탈출하고 있다. 전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인은 인종학살을 중단하고, 나토도 폭격대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은 살생을 부추기고, 평화를 깨뜨린다. 그리고 궁극에는 인류 살 전체를 뒤흔든다. 유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 하루빨리 수습되길 기대하면서 전쟁과 관련한 경전속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 이렇게 들었다

● 다른나라 군대가 침범해 왔을때, 그 강약을 잘 판단한 다음에 방편으로서의 지혜를 써서 평화리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사람은 의당 천주(天主)가 될 것이다. (제법집유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때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적과 싸워 무기로 해치면 동조옥(銅爪獄)에 떨어진다. (육취윤회경)

● 무기를 드러내 사람들을 위협해 서로 해칠 경우에는 교화해서 화합하게 하여 정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 전쟁

## "다툼으로 다툼 그치게 못한다"

● 다투으로써 다툼을 그치려 하면 필경 그치지 못한다. 오직 참아야 능히 다툼을 그치느니라. (중아함경)

● 부처님께서 사우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코살라국의 파사익왕은 마가다국의 아사세왕과의 사이에 알적이 생겨 아사세왕이 코살라국을 쳐들어왔다. 파사익왕도 군사를 이끌고 벌판에서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패하여 사위성으로 피신했다. 마침 상안으로 갈식을 나갔다가 이러한 소식을 들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싸워 이기면 원수가 많아지고, 패하면 누워도 편치 않다. 이기고 짐, 이 두가지를 함께 버리면 지나 깨나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 (집아함경)

●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기면 다시 이겨야 하고 항복받으면 다시 항복받아야 하

며, 해치면 다시 해쳐야 한다. (중아함경)

● 물이 항상 넘친다면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소부경전 자살경)

● 싸움터에 나가 천번 싸우고 천명의 적을 이기느니보다, 자기에게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사이다. (법구경)

●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하지 말라. (법구경)

● 모든 생물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 산 것을 몹스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수티니피타)

● 불자들은 칼이나 몽둥이, 활, 화살, 창, 도끼 등 싸우는 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라. 그물이나 울 거미나 덫과 같이 산짐승을 잡는 기구도 마련해 두어서는 안된다. 보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을 죽여서 되겠느냐. (법람경)

● 중오는 절대로 중으로써 쉬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랑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아함경)

● 욕심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혹은 죽고 혹은 두려워하며, 지극히 심한 고통을 받는다. (중아함경)

● 전쟁에서 수백만을 정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정복자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이다. (아함경)

●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같음으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원한은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아함경)

● 칼과 몽둥이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바른 지혜에 입각한 방법과 수단으로 모든 악을 쫓아야 한다. (대반열반경)

# 열린마당

## “출가정신과 재가연대” 심포지엄

### “출가정신으로 분규 막자”

발제 **이종표** <전남대 교수·철학과>

한국불교가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종단의 분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62년 통합 종단이후 98년까지 조계종에는 36년동안 무려 28차례의 총무원장 교체 있었다. 이중 20여번은 분규에 의해 교체됐으니 평균 1.8년에 한번꼴로 종단분규가 있는 셈이다.

조계종분규가 반복되는 것은 종단내부에 분규를 막을 스님들의 정신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규를 막기위해선 스님들의 의식과 생활이 변하고 종단운영과 조직이 부처님 가르침에 걸맞게 돼야 한다. 출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본분사에 집념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현재의 총무원이 이 점을 깨닫고 스스로 개혁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을 것이다.

사실 종단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고 본다. 종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종단구조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부처님의 출가의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출가자의 결실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스님들은 부처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 여법하게 수행하고 재가자들은 그러한 출가자를 본받아 살아갈 때 종단분규가 종식되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 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청정교단 만들기 역점”

최연 <대불련 총동문회 사무총장>

재가연대의 공식 출범은 조계종사태 당시의 비상국면에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한정하지 않고 완결성을 지향하여 상설단체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해 일어났던 조계종사태의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계종의 일상을 개혁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재가연대는 불교내외의 상황에서 부처님의 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한 불교개혁의 과제를 제출하고 풀이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세력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는 물론이다. 재가연대는 △재가불교의 단일 대외 행성을 위해 지도력있는 재가중심을 형성 △신행 혁신과 주인 의식 고취 △재가와 출가의 진정한 화합으로서의 사부대중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재가연대의 활동방향은 △재가불자 신행 혁신 △청정교단 만들기 △대중공공의 모시기 △사회참여 회향 등으로 집약된다.

재가연대는 청원과 비판, 감시를 뛰어넘어 참여 속의 개혁운동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말사의 사찰운영위원회나 각 교구의 종회, 본사운영위원회 그리고 중앙총회나 행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가연대가 긴밀하게 연결돼 움직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불자로서 수행 화합 단결의 모범적인 모습을 찾는 것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뜻은 중단분규의 방지책을 모색하고 불교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중단을 이끌어가는 스님들이 부처님출가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재가단체들이 연대한 재가연대는 이를 지켜보고 중단개혁에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 임원숙 임동주) 창립기념으로 2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출가정신과 재가연대'를 주제로 이종표 전남대교수가 '98년 조계종사태와 부처님 출가의 의미' 최연씨(대불련 총동문회 사무총장)가 '재가연대의 조직과 활동방향'에 대해 발제, 중단 분규를 막고 청정교단을 이룰수 있는 방안과 출·재가의 관계, 재가연대의 활동방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 토론

#### 파문승려 관리 철저

▲윤원철(서울대 교수)=한국 불교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재가 불자를 제대로 이끌 선지식과 승려분부에 합당치 않은 승려를 구분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파문당한 승려임에도 버젓이 승복 입고 드러내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 여건이 되는 사찰에서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이러한 '일일부작 일일복식'의 청규를 스님들에게나 재가신도들에게 중요한 일상의 수행방편으로 널리 권장했으면 한다.

#### 종단운영 스님 집중

▲성재도(부산불교교육원장)=한국불교의 문제는 스님의 수행 부족과 종단운영권이 스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또 청정하게 교단을 의회하는 재가불자의 조직 결여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스님들이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안거 의무연한제 시행 △법계제도 확립 △불자들의 수행자 존중 풍토 조성 △삼보정재 수호에 대한 책임감 확립 등도 시급하다.

#### 재가의 전문성 인정

▲손학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재가연대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재가불자들의 전문성을 불교계로 회향 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한다. 이런 작업이 없었기에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 미약했고 종단문제에도 재가불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힘들었다. 재가연대는 출가와 재가의 대립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가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 종헌에 규정된 사찰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재가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재가와 출가가 함께 고민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 비판보다 계몽 활동

▲윤남진(조계종 포교계장)=재가연대는 조직의 허리와 지도력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고 집행지도력(조직의 허리)간의 전국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갖추고 재가연대 프로그램의 공동미션과 공동시행을 위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활동방법에 있어서도 선동 비판보다는 사표와 모범을 지향하며 대안제시가 중요하다. 계몽적 활동가를 지도부의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1부 차장대우>

무자격자가 비구계를 수지했다 는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조계종 총동문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거론됐다.

총회 교육분과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35명이 무자격 비구계 수지자로 나타났다. 안거방람록 미기록, 가족관계 유지, 기본교육 미이수 등이 이유라는 보고였다. 승려법과 계단법에는 강원을 마쳤거나,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 해야 비구계 수계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비구계를 수지했다 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문제를 제기한 스님의 표현대로 계단은 "승단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여법한 수계로부터 위계질서가 세워지고 승가공동체가 확립되는 것이다.

신자들의 입장에서 스님은 귀의처이다.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무자격자의 비구계 수

### 무자격자 수계?

계는 신도와 스님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이르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계를 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조계종 139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다음부터 철저히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분명히 종법에 어긋난 것이므로 수계를 박탈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비구계는 인정 하되 승남은 일정 기간 산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대로'에는 미흡하지만, 승단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제는 '무자격 수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막자는 것이다. 교육분과위 보고에 따르면, 총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재가종무원들이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서류심사는 갈마위원회 소관이다"는 이유를 댔다. 계단위원회는 "계를 설(設戒)하고 신체감마를 하면 된다. 어떻게 서류를 모두 볼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아무튼 두 차례의 총회를 거치며 무자격자 구족계 수계 문제는 일단락됐다. 승단의 위계는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해 교육분과위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안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종법에 미비한 심사규정을 종령으로 규정해야 하며, 서류 심사에 대한 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swjung@buddhapia.com)

###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을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인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술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갖는 중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짐을 맡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 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풍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범문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술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神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량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 함께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 하는 효소가 인장배 작량을 받고 있는 가 입증된 「세시미」 성분 대량 추출은 새로운 기능성을 중심으로 지급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